

# 면허반납 혜택 주고 '실버마크'로 차량 구분

### 노인교통사고 줄이자 <3> 선진국들의 안전대책

#### 75세 넘으면 면허시험 재 실시 전문 운전가능 여부 판단도 한국 대책 고령화 속도 못따라가 고령운전 법·제도 재정비 시급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안전 대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저조한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도 각종 혜택을 제공해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고령 운전자 안전 정책이 우리나라는 75세를 기준으로 세워졌지만 선진국들은 대부분 70세를 기준으로 실시되고 있으

며, 80세부터는 아예 운전 면허증을 의무 반납토록 하는 국가도 상당수다.

국토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국토정책브리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7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시력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75세 이상은 시력검사와 함께 필기와 주행시험을 또다시 실시하고 있다. 고령자 면허갱신 주기는 똑같은 3년이지만 우리나라는 75세 이상인 반면 미국의 대다수 주는 70세 이상으로 기준이 강하다.

영국도 70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프랑스는 정부가 제작한 '고령운전자 맞춤형 의료지침서'를 토대로 담당 전문의가 70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호주에선 80세부터 1년 마다 시력·정력·의학적 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의료증명서를 면허관리청에 제출해야 하고, 85세 이상이라면 주행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를 강제적으로 말소시킨 사례도 있다. 뉴질랜드는 80세가 되면 운전 면허가 자동적으로 말소되며, 이후 운전을 원할 경우 2년 마다 면허를 따야 한다.

일본의 경우 각종 혜택을 통해 70세 이상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지난 1998년에만 30만명이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했다. 또 고령운전자에 대한 '실버마크'(단풍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게 위험 운전을 가하면 5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의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율이 지난 한해 0.2%(429명)에 그치는 등 고령 운전자 수는 줄어 들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부산시는 운전면허반납시 교통카드(10만원권), 목욕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5000명 이상이 동참해 광주·전남과 큰 차이를 보였다.

교통 안전 전문가들은 강제는 아니더라도

도 일본처럼 각종 혜택을 통해 면허증 반납을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표지판(글자 크기 확대), 노인 식별 용이한 전방신호 등, 고령운전자 차량 번호판 색깔 구분 등 교통 인프라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석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차장은 "우리나라 고령자 운전자 안전대책은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면용 손해보험협회 호남본부장은 "현재까지 면허증 반납과 적성 검사에 관한 정책들은 정부 기관들이 예산 문제와 맞물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듯 하다"며 "선진국과 같은 법과 제도를 엄격히 정비한 다음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전남 지난해 교통사고 5건중 1건은 고령운전자 사고 전남경찰 사고예방 특별대책 추진

전남지방경찰청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사고 예방(광주일보 2019년 2월 19일자 6면)을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남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중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19.2%를 차지하고, 사망자도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중 3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노인운전자 사망 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종별로 이륜차 177건(35.4%), 승용차 108건(21.6%) 순으로 높았고, 원인은 안전운전 의무위반(73.4%)이 가장 많았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직접 운전면허시험장에 찾아가 힘든 섬 지역 고령운전자들에게 찾아가는 출장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안전교육과 인지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 대형버스를 운행해 교육·검사하고,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운전자들과는 면허증 자진반납에 대해 상담

할 계획이다.

더불어 오는 4월18일까지 2개월간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집중홍보 기간'으로 설정하고 노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마을회관, 노인회 등으로 찾아가 안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아동성폭력 예방극 공연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22일)을 앞두고 20일 오후 광주시 남구 구동 빛고을문화관에서 광주지역 어린이들이 아동 성폭력 예방극에 참여하며 성폭력의 사례 등을 배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광주 동구 도시텃밭 분양

#### 199구획 3월 4일까지

광주시 동구가 3월4일까지 '도시텃밭'을 분양한다.

20일 동구에 따르면 분양대상은 용산동·용연동 일원 주말농장 3개소 100구획, 동명동·산수동·지산동 등 공·폐가텃밭 10개소 99구획이다. 1구획은 15㎡다.

신청자격은 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기관·단체로 주말농장의 경우 1구획 당 3만원 분양비가 있으며, 공·폐가텃밭은 무료다. 주말농장의 경우 가구당 1~2구획, 기관·단체는 4구획까지 신청 가능하며 공·폐가텃밭의 경우 가구당 1구획씩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동구청 홈페이지(www.donggu.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도시농부학교 수료자 등에게 우선 분양 기회를 주고, 잔여구획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문의 062-608-2722. /김용희 기자 kimyh@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3	달뜨기	20:15
해질	18:20	달질	08:23

#### 또 미세먼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 곳곳 안개 끼는 곳 있겠다.

광주	맑음	-2/11	보성	맑음	-4/11
목포	맑음	0/7	순천	맑음	0/12
여수	맑음	2/10	영광	맑음	-3/8
나주	맑음	-4/11	진도	맑음	0/7
완도	맑음	1/11	전주	맑음	-2/9
구례	맑음	-4/13	군산	맑음	-3/7
강진	맑음	-2/11	남원	맑음	-3/11
해남	맑음	-4/9	흑산도	맑음	4/7
장성	맑음	-3/11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북동	0.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1.0~2.0	북~북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1.0~2.0	북~북동	1.0~2.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8:30	03:12
여수	21:00	15:50
	04:06	10:34
	16:33	22:49

#### ◇주간 날씨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28(목)
☁	☁	☀	☀	☀	☁	☁
1/11	0/13	1/12	1/13	1/13	2/12	2/12

#### ◇생활지수

☀	높음
☁	뇌출중
☀	매우 높음
☀	감기
☀	나쁨
☀	미세먼지

## 초당대 제11대 총장에 박종구 현 총장 연임

학교법인 초당학원(이사장 김우성)은 초당대학교 제11대 총장에 현 박종구(사진) 총장을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023년까지 4년이다.

박 총장은 "대학의 경쟁력이 지역의 경쟁력이고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며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지역대학의 혁신 성공모델을 만들어 지역과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장은 2015년 3월 초당대학교 제10대 총장에 선임돼 현재까지 4년의 임



기를 수행해 오고 있다. 첫 임기 동안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 위기 속에 학사구조 개편으로 사회 맞춤형 전략학과(항공, 보건복지, 공공서비스 및 사회실무 분야)를 육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총장은 현재 광주·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최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 송정파출소 신축 신촌동으로 이전

광주 광산경찰서 송정파출소가 34년 만에 이전한다.

20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송정파출소는 송도로 입구교차로에 자리한 현 위치에서 오는 상무대로 맞은편인 신촌동 1060-17번지로 옮겨간다. 예산 12억 5500만원을 투입해 새로 지었으며 지상 2층에 대지면적 1268㎡, 건물면적 231.93㎡다.

1953년 광산 동부파출소로 문을 열어 1985년 지금 자리로 옮겨와 송정파출소로 운영됐다. 이후 2004년 송정 치안센터로, 2010년 송정파출소로 명칭을 바꿨다. 송정파출소는 송정1·신촌동과 소촌동 일부 지역 치안을 담당하며 관할 면적은 8.09㎢다. /김한영 기자 young@

